

박동철의 사진 강좌

박동철

사진

강좌

- 세 번째 -

화면 속 피사체의 배치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사진들은 대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화면 속에 전경, 중경, 원경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사진강좌 연재 일정

1. 사진을 만들어내는 요소

- 가. 빛
- 나. 카메라와 노출

2. 구성과 구도

- 가. 구성과 구도의 차이
- 나. 시점의 차이
- 다. 지그재그 배치법

3. 화면 속 피사체의 배치

- 가. 전경
- 나. 중경
- 다. 원경

4. 황금분할의 응용

- 가. 황금분할법
- 나. 삼분할법
- 다. 여백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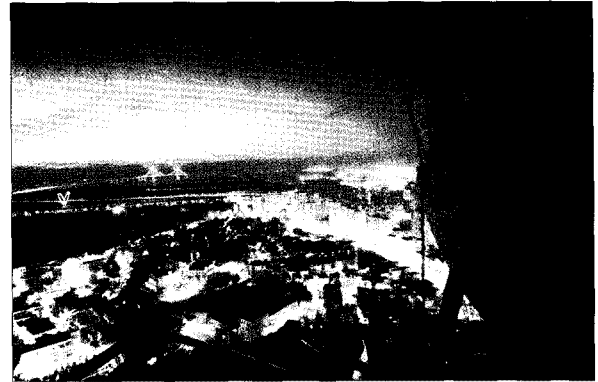
5. 초점 거리별 렌즈의 활용

- 가. 표준렌즈
- 나. 망원렌즈
- 다. 광각렌즈

6. 눈에 띄는 사진 만들기

- 가. 대비
- 나. 타이밍
- 다. 보조피사체

가. 전경(前景)의 의미와 역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전경으로 화면의 앞쪽에 주변과 조화되는 피사체를 가깝게 배치하게 되면 거리감과 입체감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두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거리감과 원근감을 느끼게 되는데, 3차원 공간에서 느껴지는 풍경의 느낌을 2차원의 사진위에 올려놓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경이다. 화면을 구성하기 전 사진가는 바라보는 풍경 속에 어떠한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촬영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 즉 화면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는 부분을 전경(前景)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사진 속 주제가 바로 전경에 위치하게 된다. 사진의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풍경사진에서 전경은 주제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화면 속에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경에 더욱 다가서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전경의 형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 카메라 쪽으로 연속된 전경

풍경사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경의 형태로 주제가 카메라 쪽으로 가깝게 놓여 있어 거리감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원근감을 쉽게 만들어낸다. 이러한 느낌은 그 끝이 카메라에 가깝고 렌즈의 시각이 넓을수록 강조되는데, 전경에서 배경까지 초점이 맞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주제 앞의 물체가 전경을 이룰 경우

나뭇가지 사이로 주제가 보이는 것과 같이 초점을 주제에만 맞추어 전경 물체들이 초점에서 벗어나 흐릿하게 표현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거리감과 함께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경의 물체가 선명히 나타나면 주제와 겹치거나 주제처럼 느껴지기 쉬워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 전경이 주제를 틀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

터널 프레임과 같이 문, 창틀, 나무와 같은 큰 물체들이 화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의 전경으로 시선이 주제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전경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있는 주제보다 어두워야 한다. 전경의 필요성과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면 사진의 구성은 절반이상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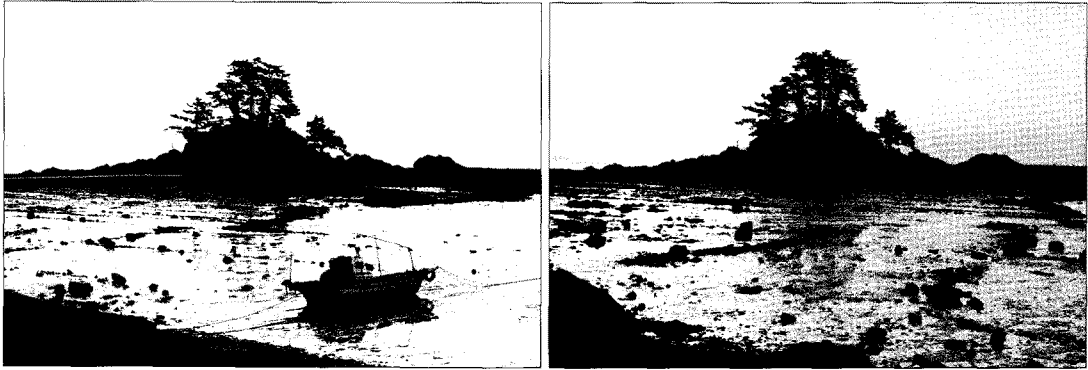
박동철의 사진 강좌

박동철

사진

강좌

나. 중경(中景)의 의미와 역할



중경으로 작은 고깃배를 배치한 사진이 훨씬 더 세련되고, 바닷가 어촌의 느낌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경 다음으로 멀리 떨어진 부분, 즉 화면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을 중경(中景)이라 한다. 중경은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진 전체가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중경을 이루고 있는 색에 따라 사진이 중후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가 하면, 밝고 명랑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 지기도 하는 등, 중경은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에서 원근감의 척도가 되는 전경과 원경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왜냐하면 거리감을 느끼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사체와 가장 멀리 있는 피사체만 존재하면 어지간한 원근감과 거리감이 나타나 화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경은 화면 속에 산재되어있는 요소들을 사진가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며 공감과 분위기를 함께 제공한다.

다. 원경(遠景)의 의미와 역할



망원 렌즈로 촬영한 왼쪽 사진에 비해 원경으로 하늘과 바다를 표현한 오른쪽 사진은 전체적인 규모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쉽게 말해 원경은 사진의 배경이다. 망원렌즈를 이용한 사진이라면 주제를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을 의미하지만, 광각렌즈가 주류를 이루는 풍경사진이라면 카메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하늘과 같이 광활한 자연의 일부가 원경이 된다. 원경은 사진의 위쪽 가장자리와 근접하게 되고, 전체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백이 없는 패턴사진은 화면의 사방이 모두 막혀있어 그 크기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풍경사진에서는 전체적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사진의 가장자리와 원경의 마지막 부분에 적당한 여백을 두어야 한다. 원경은 주제를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주제와 부제가 보기 싫게 겹치는 것을 피하려면 배경이 밝고 주제가 어둡거나 주제가 밝고 배경이 어둡도록 만들어 주면 된다. 주제와 상반된,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원경은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돋보이는 것을 방해하여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나뭇가지나 전신주와 전깃줄, 기타 예기치 않은 사물들의 일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피사체 배치가 화면의 균형·거리감·규모감 결정

광각렌즈를 이용한 사진들은 이러한 화면 속의 배치가 망원렌즈보다 훨씬 수월하다. 어떤 경우는 단지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충분히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촬영자가 움직이지 않고 좋은 화면을 구성한다는 것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이다. 전경으로부터 원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보조 피사체들을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과 원근감을 만들어 감상자에게 실제 그 자리에서 보는 듯한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작가의 의사 전달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전경, 중경, 원경을 잘 분류하여 배치할수록 화면전체의 균형이 잘 맞을 뿐 아니라 거리감과 규모감이 훨씬 잘 살아나게 된다. 또 화면 속 보조 피사체들은 주 피사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여 상황을 현실감 있고 입체감 있도록 만들어준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눈에 익게 된다.



박동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사진에 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지를 대표하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 1편과 2편 및 사진전문 서적 '사진의 구도&구성' 등을 출간했다. 2001년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의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여행지와 사진촬영기법 소개를 위해 TV와 라디오 등에도 수차례 출연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에서 사진학 강의를 비롯한 각종 사진학 강의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사진 계에서는 유명강사로 정평이 나왔다. 현재 사진동호회 처리닷컴(<http://cheori.com>)을 운영 중이다.